

과거 발언 해명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

범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 일부 대선 예비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과거 발언에 대해 사실상 사과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 전 지사는 특히,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해 극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 지지 입장을 나타내 범여권 주자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23일 손 전 지사는 과거 신한국당 대변인 시절과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했던 시절의 일부 발언과 관련한 광주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개인적으로 DJ와 노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과도한 표현과 관련, 두 분은 물론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DJ·盧 비난 진심으로 사과”

색깔론·지역주의 발언 혐오...“한나라당 시절 논평이었을 뿐”

손 전 지사는 또한,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과도한 정치적 대립이 지배해온 측면이 있으며 특히 대변인 시절 논평은 개인의 입장보다는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6년 1월 ‘김대중 전 총재가 1일 1 건주의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은 정상인지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논평과 관련, 손 전 지사는 “당시 상황에서 제기된 여야간의 정치적 공방이었으며 일부 과도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96년 1월 ‘김대중 총재가 간접 서경원을 통해 김일성의 돈을 받은 사실과 김 총재의 사상적 편력 등에 적나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평과 관련, 손 전 지사는 “국민회의 측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논평이었을 뿐”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사를 지극히 혐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을 ‘꼴통 진보’라고 폄하한 것과 관련, “한국의 진보세력도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진보 진영이 교조적 입장보다는 국민의 삶에 기반한 민생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이라며 “일부 표현이 과한 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손학규 전 경기지사 과거 발언과 해명

발언	해명
“김대중 총재 정신은 정상인지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96년 1월 26일)	“DJ가 내각제 음모설 등을 제기하는 등 상황에서 제기된 정치공방·과도한 발언은 안타까워”
“김대중 총재는 공작정치의 동반자” (95년 11월 14일)	“DJ가 노태우 비자금 ‘20억원 수수’ 시인한 결과에 따른 국민적 의문을 전달한 것”
“김대중 총재의 사상적인 편력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96년 1월 17일)	“당시 신한국당에 입당한 재야 인사들에 대한 국민회의 측 정치공세에 대응한 논평”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란 신조어를 아느냐!” (05년 7월 12일)	“언론에 떠도는 말을 소개한 것으로 경제·민생에 관심 더 가져달라는 의미”

같은 해 7월 박근혜 대표 면담시,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조롱한 것과 관련, 손 전 지사는 “언론과 시중에 떠도는 말을 소개한 것으로 노 대통령에 경제와 민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손 전 지사는 DJ와 국민의 정부에 대해 “DJ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정치발전 위해 헌신한 분이며 DJ와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국난을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의 새장을 열었으며 (나는) 한나

라당에 있을 때부터 DJ의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극찬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 이후 민생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경유착 근절과 권위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라며 “노 대통령의 일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의 검증 공세에 대해 “검증은 당연하다”며 “다 후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정치 경력이 관련된 검증을 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나는 민노당 표도 끌어올 사람”

천정배 의원은 21일 “나는 민노당의 표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진보 세력의 주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여수시 학동의 한 시

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해한 후보가 민주개혁세력의 적장자라며 대권후보에 도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와 나의 개혁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 그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평평한 상대끼리 바둑을 둘 때 실사 100수 정도밖에 두지 않았더라도 세집 반, 다섯집 반 차이로 지는 것이 확실하면 고수는 돌을 던진다”며 “손 전 지사는 바둑으로 표현하면 무난히 지는 바둑”이라고 주장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결국 깨지나

대통합과 의원 오늘 탈당, 단체장 24일 탈당 대기

통합민주당이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분열의 수순에 돌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상천, 김한길 대표가 23일 제3차 대통합 합류에 대한 극적인 의견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2일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관계자에 따르면 김효석, 이낙연, 채일병, 신중식 의원 등은 23일 탈당을 결행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오는 24일 광주·전남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과 관계자는 “23일 오후까지 탈당을 보류하고 당내 의견 조율을 지켜보겠지

만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탈당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지난 주말 박상천 대표와 몰밀 접촉을 갖고 통합민주당이 제3차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 중도개혁통합신당 출신 의원들이 구 민주당 출신 대통합파를 따라 동반 탈당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3차 대통합 신당 합류에는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통합민주당을 탈당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한길 대표를 주축으로 구 중도개혁통합신당 출신 의원들은 당분간 박상천 대표를 집중 압박, 제3차 대통합 신당

창당일인 다음달 5일을 전후해 당 대 통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박상천 대표를 주축으로 구 민주계는 제3차 대통합을 통한 범여권 단일 리그보다는 통합민주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양대 리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조순형 의원이 이인제, 신국환 의원과 추미애, 김영환 전 의원 등 당내 주자들과 함께 단일 리그를 치러 대선을 앞두고 제3차 대통합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가 구체화된다면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들의 추가 탈당 등이 가시화되면서 통합민주당은 또 한번 극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 광주·전남본부 결성식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KT빌딩에서 열린 국경추 결성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 쏜소리’ 조순형 26일 대선출마 선언

‘미스터 쏜소리’ 조순형(사천)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1주년 기념일인 오는 26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범여권 대선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의원의 한 측근은 22일 “조 의원은 그동안 김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출마권 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최근 통합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그의 출마를 20여 명 이상의 범여후보 난립 현상에 숫자를 하나 더하는 의미로만 보지는 않은 듯하다. 통합민주당 측은 조 의원의 강점을 ‘반(反) 노무현, 반(反) 한나라당’ 구도에서 찾고 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이끈 주역이며 현재도 그에 대해 ‘변하지 않는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출마로 범여권이 단일 리그가 아닌 ‘양대 리그’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면 통합민주당은 이인제·신국환 의원, 추미애·김영환 전 의원 등 기존의 주자들과 함께 ‘민주당 단일 리그’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스터 쏜소리’ 조순형(사천)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1주년 기념일인 오는 26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범여권 대선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국경추 광주본부는 강기정 의원과 여명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경추 광주·전남본부는 결성 선언문에서 “국민경선 운동은 시민사회 세력과 양심

‘국민후보 선출’ 국경추 광주·전남본부 출범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과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추진협의회(이하 국경추) 광주·전남본부가 21일 오후 광주 동구 KT빌딩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결성식에는 천정배 의원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대선주자와 광주·전남지역 정치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경추 광주·전남본부는 결성 선언문에서 “국민경선 운동은 시민사회 세력과 양심

있는 정치인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평화 개혁세력의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추 또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과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집회와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대선 승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국경추 광주본부는 강기정 의원과 여명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경추 광주·전남본부는 결성 선언문에서 “국민경선 운동은 시민사회 세력과 양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30% 할인

모디쉬갤러리 홍주점 010-252-3001-2 / 금호아트점 010-351-8774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센터를 더 좋아합니다.

KT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이용문의

KT파워텔 광주지점 062-526-0130